

1권 · 서이의 실전 블로그 자동화 가이드

# 매장 3개 운영하는 제가, 블로그를 AI한테 맡겨봤습니다

시술하고 상담하고 직원 관리하다 하루가 끝나던 제가,  
지금은 사진 몇 장과 시술 정보 한마디로 블로그 글을 완성합니다.

## 매장 3개 운영하는 제가, 블로그를 AI한테 맡겨봤습니다

1권 · 기본 편

|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지은이  | 김서이               |
| 문의   | 인스타그램 @lloyd_seoi |
| 받는 곳 | seoi.vercel.app   |

### © 김서이, 2026

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·복제·배포를 금지합니다.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지은이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무료로 나눠 드리는 책이지만, 내용을 다른 곳에 올리거나 고쳐 쓰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.

주변에 알려 주실 때는 파일 대신 seoi.vercel.app 주소를 알려 주세요. 최신 판은 늘 그곳에 있어요.

# 목차

—      프롤로그 — 콘텐츠는 만들어야 하는데 몸이 하나라면

01      클로드 설치하기

02      브라우저에서 바로 "Code" 들어가는 법 — 모양과 위치

03      처음엔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

04      결과 보면서 다듬기 — 나만의 규칙은 이렇게 생겨요

05      근데 이 두 가지는 절대 AI한테 안 맡겨요 (휴먼터치)

06      이런 것도 자동으로 가능해요

07      완성된 글, 네이버에 올릴 때 저는 이렇게 해요

08      매장 정보 넣는 법

09      사진은 하나씩 올리지 마시고 이렇게 관리하세요

10      실제로 글 써달라고 할 때 — 시작용 지시문

11      막힐 때 이렇게 하세요 — 실전 FAQ

12      네이버 자동 임시저장 맛보기 — 무료 스타터 킷

13      직접 만들기, 아니면 바로 써보기

14      2권으로 넘어가기 전에

## 프롤로그 — 콘텐츠는 만들어야 하는데 몸이 하나라면

---

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하나하나 모두 직접 손으로 했어요. 블로그 작성이나 코딩한다고 터미널(Terminal) 파워셸(PowerShell)에 코딩도 자꾸 오류 나고, 컴퓨터는 튕겨버리고, 어제 됐던 게 오늘 안 되고.

근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지금은 사진 몇 장이랑 시술 정보 한마디만 주면 블로그 글 한 편이 자동으로 거의 다 만들어져요.

세 매장을 하면서 시술하고, 상담하고, 직원 관리하다 보면 하루가 끝나 있고 "오늘도 블로그 못 썼네" 하고 넘어간 날이 훨씬 많았어요. 블로그는 결국 꾸준함이 전부인데, 매번 글감 고민하고 서식까지 손으로 다듬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.

지금은 달라요. 매장 톤이랑 제 말투는 그대로인데, 올리는 빈도는 확실히 늘었어요. 이거 하나 세팅해두는 게, 손 하나 더 쓰는 것보다 훨씬 남는 장사예요.

이 책엔 제가 실제로 한 순서 그대로, 막혔던 부분까지 숨기지 않고 다 담았어요.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 순서로 알려주고 있어요.

# 01 클로드 설치하기

claude.ai 로 들어가세요. 검색해서 들어가지 말고 주소를 직접 치는 게 광고나 가짜 사이트를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.

→ **claude.ai** 바로가기

- 1 화면에서 데스크톱 앱 다운로드 버튼 클릭 (맥이면 .dmg, 윈도우면 .exe 파일이 받아져요)
- 2 다운로드된 파일 실행 → 설치
- 3 설치 끝나면 맥은 "Applications" 폴더, 윈도우는 시작 메뉴에서 클로드 실행
- 4 처음 실행하면 로그인 화면. 계정 없으면 이메일로 새로 만들고, 있으면 로그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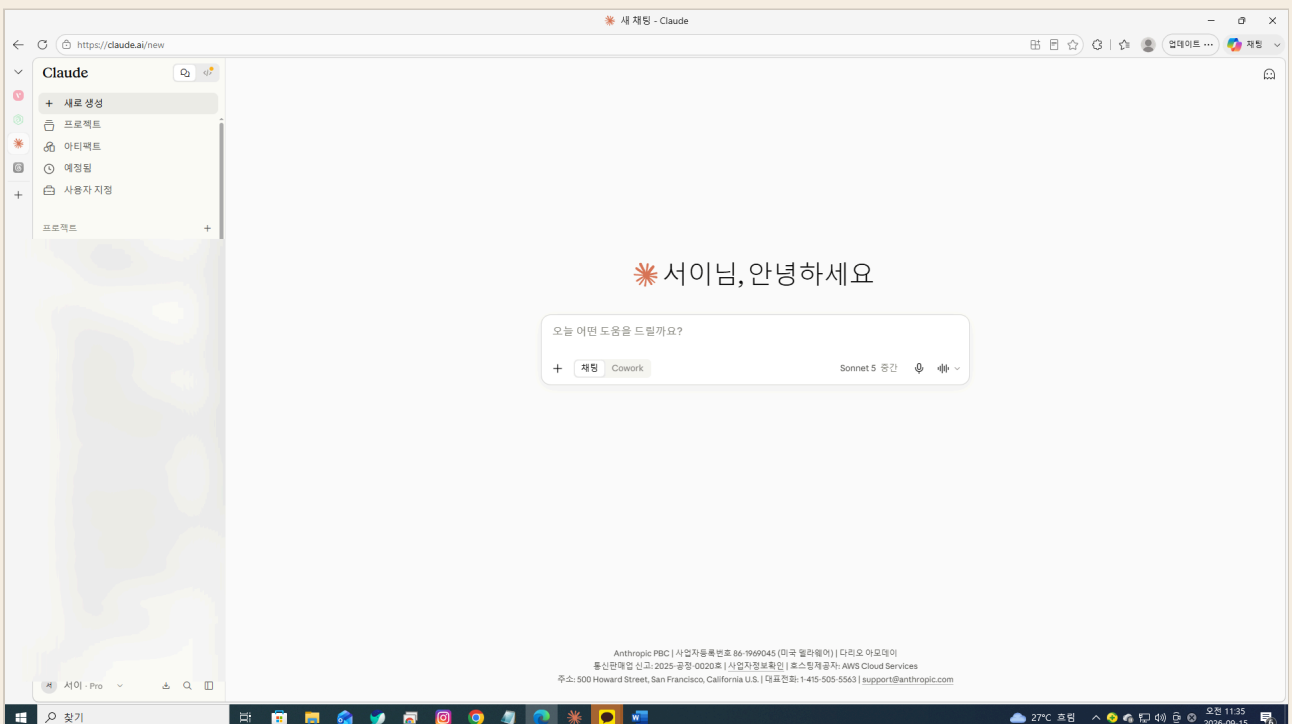
요금제는 Pro (월간 결제 \$22, 연간 결제시 월 \$18)면 처음은 충분해요.

무료 플랜에서는 다음 단계(Code)를 아예 못 열어요. 하루 종일 코딩하는 정도가 아니면 이걸로 충분하니, 더 비싼 Max는 필요 없어요. 결제는 월간으로 시작하시고, 계속 쓰게 되면 그때 연간으로 바꾸셔도 늦지 않아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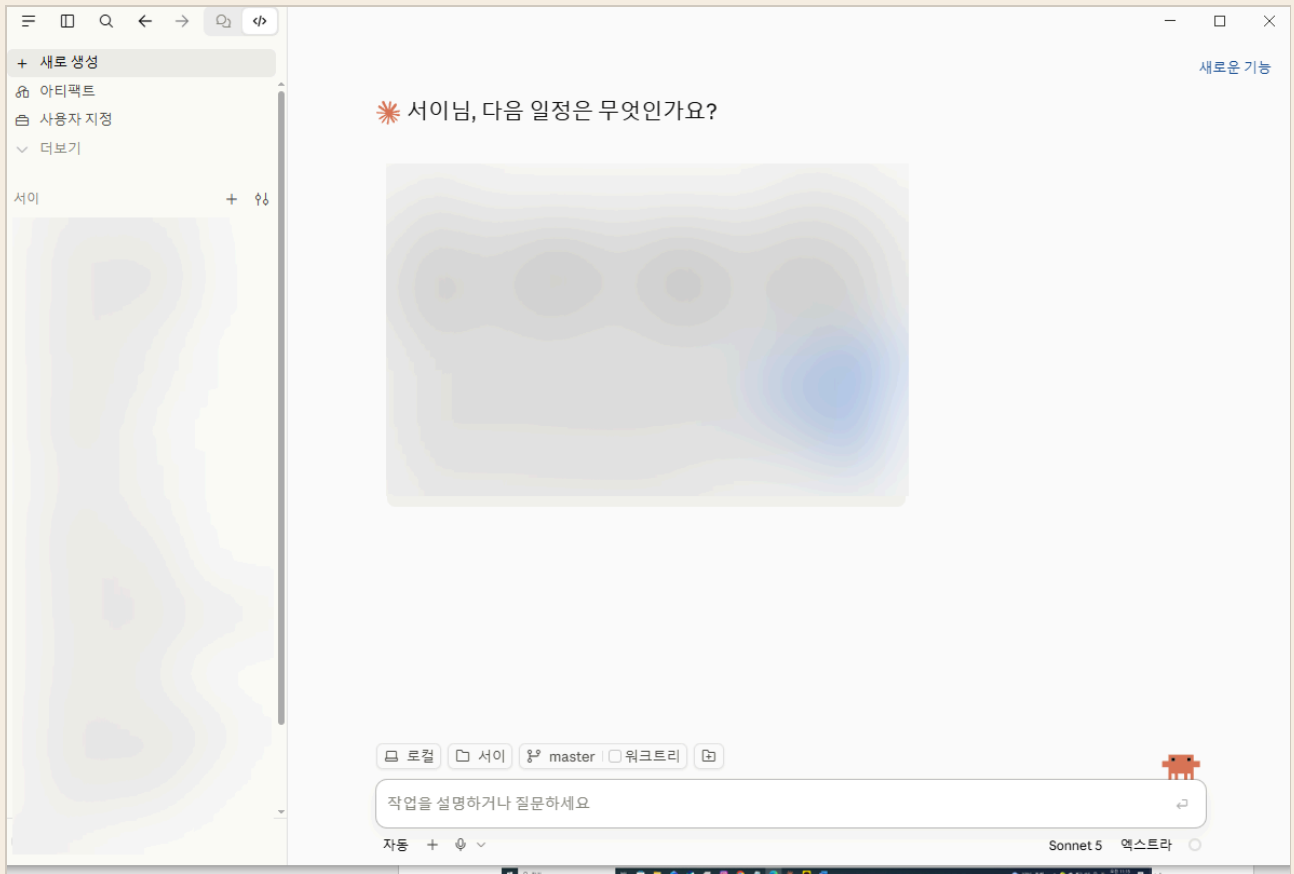
설치 중 보안 경고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— 11번 FAQ에서 바로 해결법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.

## 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

컴퓨터에 다운로드한 후 Code 탭에 들어가면 채팅창처럼 생긴 빈 화면이 나와요. 아래 두 방법 다 같은 클로드예요. 편한 쪽으로 쓰시면 돼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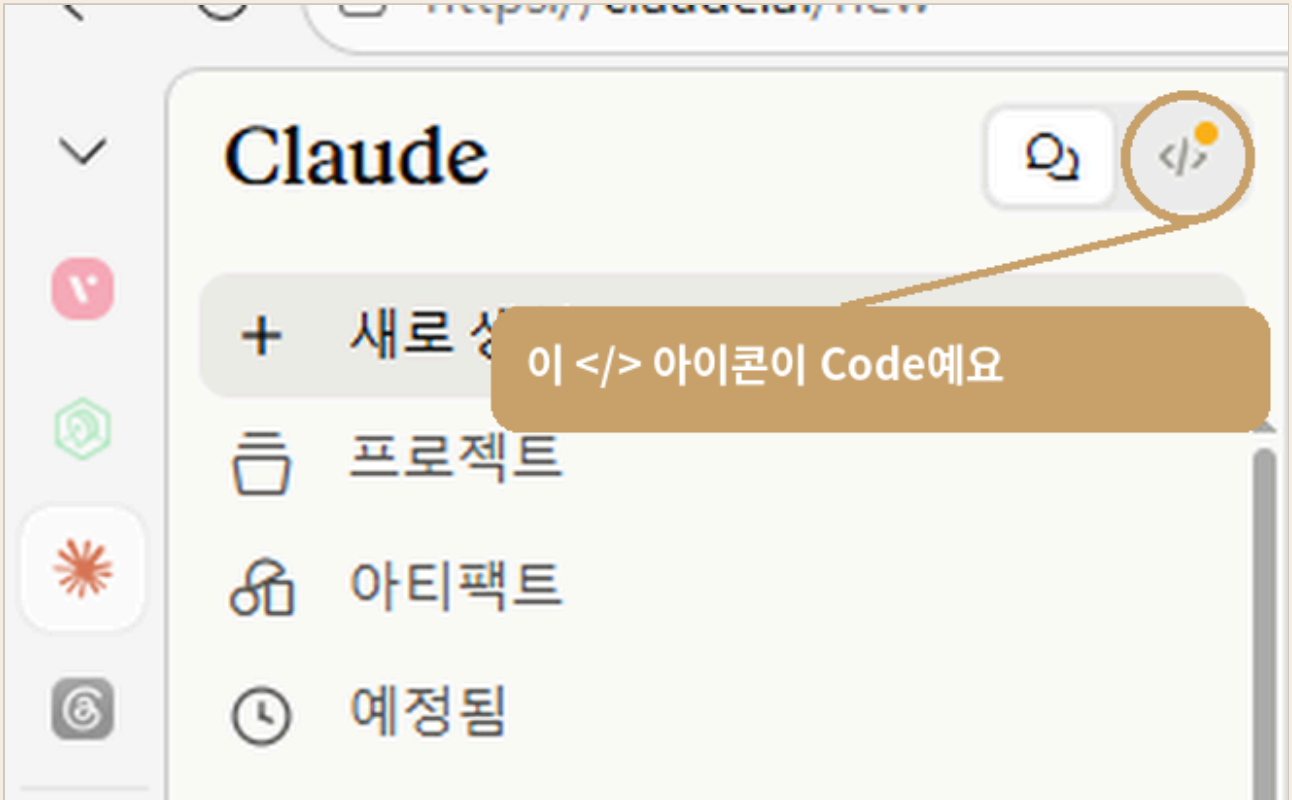
▲ 브라우저로 (claude.ai)로 들어간 실제 화면



▲ 컴퓨터에 설치한 앱(Code)으로 들어간 실제 화면 — 개인 정보는 블러 처리했어요

## 02 브라우저에서 바로 "Code" 들어가는 법 — 모양과 위치

로그인하고 나면 화면 오른쪽 위, 말풍선 아이콘 옆에 "</>" 모양 아이콘이 보여요. 이게 "Code"예요. 마우스를 올리면 이름표(툴팁)로 "Code"라고 뜨니 헷갈리면 확인해보세요.



▲ 실제 화면 — Code 아이콘 위치

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채팅창처럼 생긴 빈 화면이 나와요. 여기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고, 파일을 다루고, 실행까지 시키는 공간이에요.

화면은 업데이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. "Code"라는 이름표가 뜨는 아이콘을 찾으시면 돼요.

## 03 처음엔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

Code 탭에 들어가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, 그냥 하고 싶은 걸 사람에게 말하듯 편하게 문장으로 치면 돼요.

### "네이버 블로그에 자동으로 글 올리는 프로그램 만들어줘"

이 한 줄이면 바로 시작이에요. 이걸 치면 클로드가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알아서 컴퓨터에 설치하고, 실행 가능한 화면까지 직접 만들어서 보여줘요. 다만 "올리는 프로그램"은 이 한 줄로 완성되지 않아요. 글쓰기 → 서식 → 사진 → 업로드 순서로 하나씩 붙여가야 하고, 그 방법은 2권에 담았어요.

**여기서 중요한 것:** 이 첫 문장 하나로 완벽한 게 나오지 않아요. 그게 정상이에요. 클로드 코드는 한 번에 끝내는 도구가 아니라, 대화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도구예요.



▲ 실제 대화 흐름을 재현한 예시 — 요청하면 파일을 만들고, 다듬어달라고 하면 바로 반영해요

지금 나온 화면이 어설피 보여도 정상이에요 — 실망하지 마세요. 여기서부터 다듬어가는 거예요. 다듬는 법은 바로 다음 장에 있어요.

## 04 결과 보면서 다듬기 — 나만의 규칙은 이렇게 생겨요

---

화면이 만들어지면 직접 열어서 확인해보세요.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.

**"이거 이상해, 글씨체 굵기 수정해줘"**

더 구체적으로 말할수록 좋아요. 예를 들면 —

- "이 문장 너무 광고 같아, 더 담담하게 써줘"
- "안녕하세요로 시작하지 마"
- "소제목에 이런 표현은 쓰지 마"

이렇게 하나씩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과정 자체가, 나만의 규칙을 만드는 과정이에요. 몇 번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 "이 표현은 쓰지 마", "이 순서로 써줘" 같은 게 쌓이고, 그게 자연스럽게 나만의 규칙이 돼요. 이 규칙을 한 번 확정해두면, 그 다음부터 말 한 줄로 끝나요.

한번에 규칙을 넣을 지시문은 8장과 10장에서 이어집니다.

# 05

## 근데 이 두 가지는 절대 AI한테 안 맡겨요 (휴먼터치)

①

### 로그인은 항상 사람이 직접

아이디·비밀번호를 AI한테 넘긴 적 한 번도 없어요.  
네이버 로그인 창이 새로 뜨면 **본인이 직접 입력**해요.  
대신 처음 한 번만 이렇게 해두면, 그 다음부터 로그인  
정보가 컴퓨터에 저장돼서 매번 다시 로그인하지  
않아도 자동으로 로그인된 상태로 시작돼요.

②

### 발행 버튼도 항상 사람이 직접

글은 AI가 써주지만, 세상에 올라가는 마지막 버튼은  
꼭 사람이 눌러요. 예약발행도 기술적으로는  
가능하지만, 저는 실수한 건 없는지 **사람이 한 번  
검토하고 직접 누르는 쪽**을 택했어요. 이건 정답이  
정해진 규칙이라기보다 제 선택이에요 — 편한  
쪽으로 정하시면 돼요.

이 두 가지만 지키면 계정도 안전하고, 실수로 이상한 글이 올라가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.

## 06 이런 것도 자동으로 가능해요

---

- 키워드가 클마다 자연스럽게 가능해요 (억지로 끼워 맞춘 티 안 나게)
  - 매장 정보, 예약 링크, 해시태그가 글 끝에 자동으로 가능해요
  - 글감을 미리 여러 편 만들어서 임시저장까지 쌓아두면, 발행 버튼만 그때그때 확인 후 누르면 끝
- 

앞의 두 가지(키워드, 매장정보 자동 첨부)는 8장·10장까지만 따라오셔도 바로 되는 것들이에요. 마지막 "임시저장까지 자동으로 쌓아두기"는 별도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에요. 제목과 본문까지는 12장의 무료 스타터 킷으로 바로 해볼 수 있고, 사진·서식까지는 2권에서 다뤄요 — 그래서 바로 다음 7장은 아직 수동으로 올리는 과정이에요.

# 07

## 완성된 글, 네이버에 올릴 때 저는 이렇게 해요

---

사실 이 과정도 프로그램으로 자동화할 수 있어요. 제목·본문 임시저장은 12장의 무료 스타터 키트로, 인용구 적용이나 사진 넣기까지는 2권의 완성 패키지로 해요.

- 1 [소제목] 규칙을 넣고 표시된 부분을 드래그해서 인용구 버튼(제목 박스 스타일) 적용
- 2 [사진첨부] 규칙을 넣고 표시된 자리에 실제 사진 넣기
- 3 검토 후 직접 발행 버튼 클릭

[사진첨부]처럼 자리를 직접 표시해두면, 나중에 사진 순서를 바꾸거나 한 장을 빼고 싶을 때 어디를 고치면 되는지 한눈에 보여서 수정하기 편해요. 2권의 자동화 버전에서도 이 표시 방식은 그대로 써요.

# 08 매장 정보 넣는 법

규칙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넣어야 하는 게 매장 정보예요. 메모장이나 워드에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리해두고 지시문을 만드세요.

## 매장 정보 예시

매장명: 로이드밤 쌍용점

위치: (주소)

시그니처 시술: 탈색, 블랙빼기, 레이어드펌, 히피펌

예약 링크: (네이버 예약 프로필 링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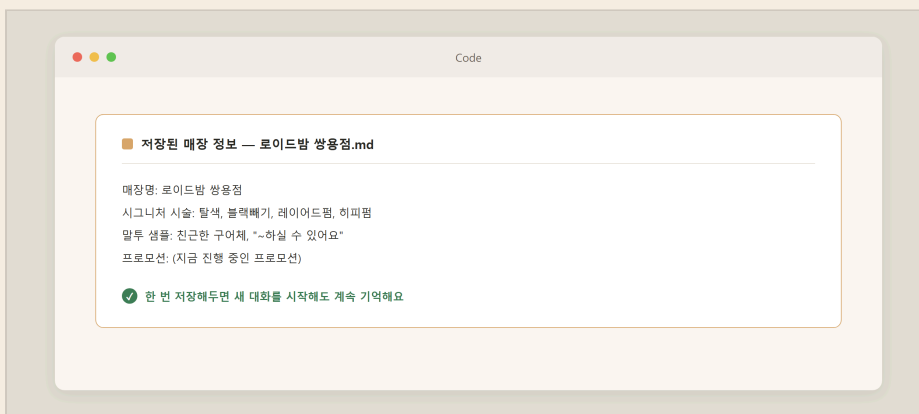
주차 안내: (주차 정보)

말투 샘플: 친근한 구어체, "~하실 수 있어요" 식

프로모션: (지금 진행 중인 프로모션)

이 내용을 Code 탭에 붙여넣고 이렇게 말하세요.

**"이 매장 정보를 기억해두고, 앞으로 블로그 글 써달라고 할 때마다 이 정보를 참고해서 써줘."**



▲ 저장된 매장 정보 파일을 재현한 예시 이미지

클로드가 이 정보를 파일로 저장해둬서, 다음에 대화를 새로 시작해도 다시 안 알려줘도 알아서 기억하고 있어요. 이 파일은 작업 폴더 안의 CLAUDE.md예요. Code 탭에서 같은 폴더를 열고 시작해야 이어져요. 폴더 만드는 법은 2권 1단계에 있어요.

매장이 여러 개면 지점마다 파일을 따로 만들어주세요 — "탕정점 불당점 글 써줘"라고만 해도 헷갈리지 않고 맞는 정보로 써줘요.

한 파일 안에 있어도, 지점마다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적혀 있거나 하면 "탕정점 글 써줘" 했을 때 그 부분만 찾아서 쓸 수 있어요. 다만 매장이 4개 이상이거나 지점마다 프로모션이 자주 바뀐다면, 그때는 파일을 따로 나누는 쪽이 헷갈리지 않고 관리하기 편해요. 2~3개 정도면 한 파일로 충분해요.

# 09

## 사진은 하나씩 올리지 마시고 이렇게 관리하세요

---

사진은 AI한테 맡기고 그중에서 제가 직접 골라요. 대신 관리는 이렇게 해두면 편해요.

- 파일명은 날짜+시술명으로 (예: 0914다운펌)
- 지점별로 폴더를 따로 만들기 (쌍용점 / 불당점 / 탕정점)

이렇게 해두면 "이 폴더 사진으로 글 써줘"라고 할 때 클로드가 헛갈리지 않아요. 영상에서 사진을 뽑아야 할 때는 이렇게 시키면 돼요.

**"쌍용점 폴더의 다운펌 영상에서 장면이 바뀌는 지점마다 스크린샷을 뽑아줘."**

# 10 실제로 글 써달라고 할 때 — 시작용 지시문

규칙이랑 매장 정보까지 만들었으면, 이제부터 이렇게 짧게 시키면 돼요.

## "네이버 블로그 SEO에 맞는 [시술명] 후기 글 써줘"

만약 아직 규칙을 안 만드셨다면, 아래 지시문을 통째로 복사해서 Code 탭에 붙여넣고 시작하세요. 이게 출발점이에요. 자기의 스타일로 지시문을 만들어주세요.

### 시작용 지시문 — 복사해서 사용하세요

당신은 네이버 블로그 작가입니다

제가 알려주는 시술/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블로그 글을 써주세요.

광고처럼 쓰지 말고, 옆에서 편하게 말해주는 느낌으로 써주세요.

규칙:

1. "안녕하세요"로 시작하지 말고, 고객이 궁금해할 질문으로 바로 시작하세요.

2. 시술 설명보다 "고객이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"를 먼저 풀어서 써주세요.

3. 아래 흐름으로 써주세요:

- 고민 공감
- 왜 이 방법을 선택했는지 설명
- 실제 상담 사례
- 결과와 관리 팁

4. 말투는 "~하실 수 있어요"처럼 편한 구어체로 써주세요.

5. 한 문단은 짧게(2~3줄), 글자수 채우려고 늘어지게 쓰지 마세요.

제가 알려드릴 정보

- 시술/주제
- 상담했던 손님 이야기 한두 줄
- 톤: 친근하게 / 정중하게 중 선택

저장된 매장정보 참고해서 마지막에 넣어줘

# 11

## 막힐 때 이렇게 하세요 — 실전 FAQ

여기부터는 저랑 저희 직원들이 실제로 처음 써보면서 막혔던 부분들이에요. 미리 알아두면 훨씬 수월해요.

### Q 설치할 때 "확인되지 않은 개발자" 경고가 떠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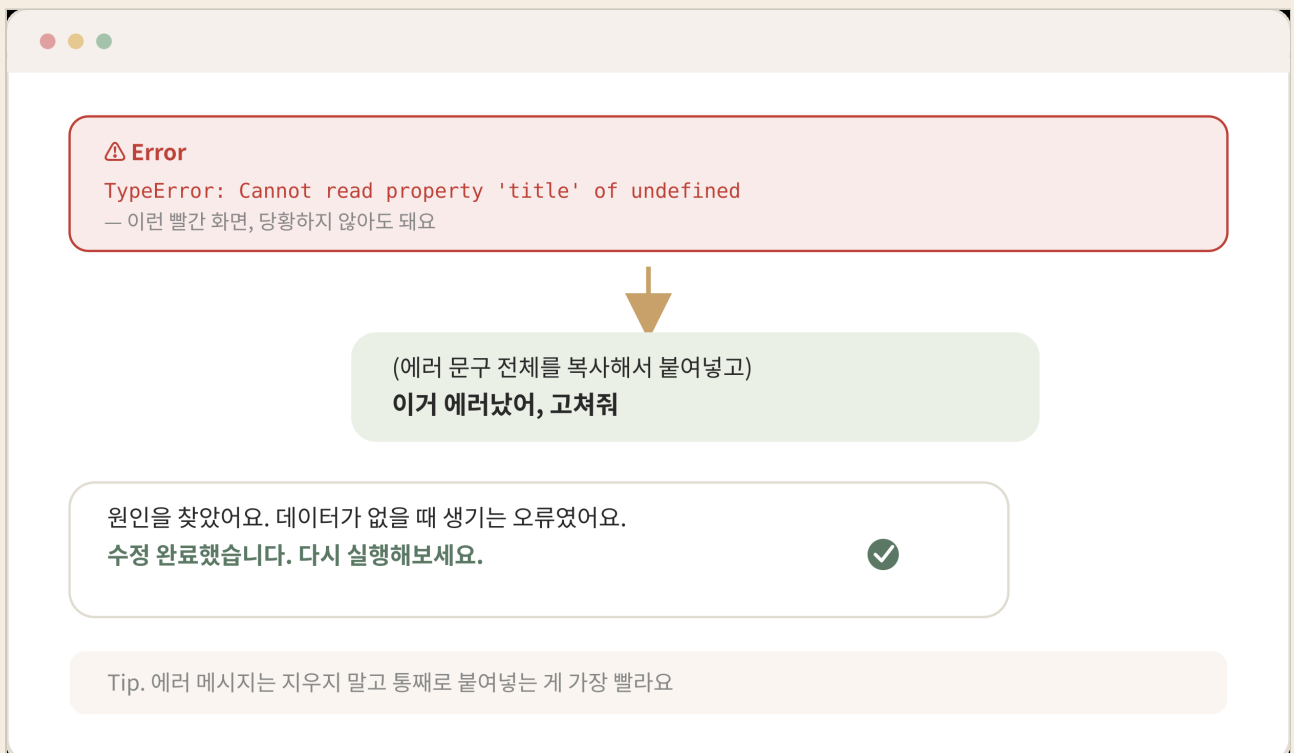
A 맥이라면 경고창을 닫고 시스템 설정 →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으로 들어가면 방금 막힌 앱이 보여요. "그래도 열기"를 누르면 실행돼요. 윈도우는 "Windows의 PC 보호" 창에서 "추가 정보"를 누르면 "실행" 버튼이 나타나요.

### Q 대화 중에 클로드가 자꾸 뭘 물어봐요 (터미널에서 실행해도 될까요 등)

A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. 컴퓨터에 뭔가 설치하거나 실행하기 전에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. 내용이 이상하지 않다면 화면에 뜬 허용 버튼을 누르거나 "응, 진행해줘"라고 답하면 넘어가요.

### Q 화면에 빨간 글씨로 에러가 떴어요

A 당황하지 말고 그 문구를 통째로 복사해서 채팅창에 붙여넣고 "에러났어, 고쳐줘"라고만 치면 돼요. 클로드가 원인을 찾아서 알아서 고쳐요.



▲ 에러가 떴을 때 실제 대응 흐름을 재현한 예시

**Q** 새 대화를 시작했는데 매장 정보를 까먹은 것 같아요

**A** 8번처럼 "기억해두라"고 한 번 확실히 말해줬다면 새 대화에서도 유지돼요. 다르게 나오면 "저번에 알려준 매장 정보 기억하지?"라고 한 번 확인해보세요. 그래도 안 되면 처음 그 파일을 저장했던 **같은 폴더에서 열었는지** 확인하세요.

---

**Q** 완성된 파일을 확인하고 싶어요

**A** 채팅 안에 파일 카드(다운로드 버튼)가 떠요. 누르면 컴퓨터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돼요.

---

# 12 네이버 자동 임시저장 맛보기 — 무료 스타터 키트

7장에서는 완성된 글을 직접 붙여넣었어요. 이 장에서는 그 붙여넣기까지 자동으로 해주는 무료 파일, **스타터 키트**를 드려요. 글 파일을 주면 크롬 창이 뜨고, 제목과 본문을 넣고, 임시저장까지 저절로 눌러요. **발행은 하지 않아요**. 발행은 항상 직접 해요. 사진·글자 크기·인용구 소제목·썸네일까지 자동으로 넣는 건 2권의 **완성 패키지**예요.

## 받는 곳

[seoi.vercel.app](https://seoi.vercel.app)의 전자책 페이지에서 1권 옆 "스타터 키트 받기"를 누르면 `starter_kit.zip` 이 받아져요. 압축을 풀면 나오는 `naver_draft_starter.py` 파일을 Code 탭 작업 폴더에 넣으세요.

## 클로드에게 시킬 말

"내 컴퓨터에 파이썬이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줘. 없으면 설치 방법을 알려주고, 있으면 playwright 패키지를 설치해줘."

"방금 쓴 블로그 글을 naver\_draft\_starter.py로 임시저장해줘. 내 블로그 아이디는 (내 아이디)야."

괄호 안은 본인 네이버 블로그 아이디로 바꿔서 넣으세요. 글은 첫 줄이 "제목:"으로 시작해야 해요. 10장 지시문 끝에 "첫 줄은 제목:으로 시작해줘"를 한 줄 넣어두면 편해요.

문장을 치면 크롬 창이 떠요 → **로그인만 직접** 하세요(다음부터는 안 물어요) → 제목·본문 입력과 저장은 자동이에요 → **임시저장 확인됨** (N개 → N+1개) 가 뜨면 성공이에요. 글쓰기 화면 위 "저장" 옆 숫자를 눌러 방금 글을 열어보세요.

## 막히면

| 증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크롬 창이 안 뜬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크롬이 설치돼 있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code>No module named playwright</code> | 클로드에게 "playwright 설치해줘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로그인 창에서 멈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직접 로그인하세요.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어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저장 버튼이 안 눌린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처음 열면 "도움말" 패널이 저장 버튼을 가려요. 자동으로 닫지만, 안 닫히면 창에서 직접 닫고 다시 실행 |
| "저장 완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"                     | "저장" 옆 숫자를 눌러 임시저장 목록에서 직접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그 밖의 에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1장처럼 에러 문구를 통째로 붙여넣고 "지금 화면을 캡처해서 무엇이 보이는지 먼저 말해줘"라고 덧붙이기  |

# 13 직접 만들기, 아니면 바로 써보기

---

##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면

위 시작용 지시문으로 클로드 코드에 말을 걸어보세요. 처음엔 어설퍼도, 쓰면서 다듬다 보면 자기만의 규칙이 생겨요. 그 과정 자체가 자산이 돼요.

## 지금 바로 써보고 싶다면

만드는 과정 없이 결과물이 필요하시면, 서이 스튜디오 → 블로그 1분컷으로 바로 써보실 수 있어요. 주제만 넣으면 네이버 블로그 글이 바로 완성돼요.

→ 서이 스튜디오 바로가기

## "올리는 프로그램 만들어줘"부터 치지 마세요. 이 두 곳을 알기 전까지는요

1권을 따라 한 분들이 공통으로 멈춘 곳이 두 군데 있어요.

- **자동 업로드가 안 만들어져요.** "만들어줘" 한 줄로는 안 나와요. 제 업로더도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.
- **결과가 들쭉날쭉해요.** 어떤 날은 마음에 들고, 어떤 날은 광고 같아요. 새 대화를 열면 처음부터 다시예요.

스타터 키트는 제목과 본문까지예요. 여기서 멈추면 서식·인용구·썸네일·톡톡·지도는 글마다 손으로 넣어야 해요. 소제목이 6개면 인용구 작업만 6번이에요.

کم맹인 저도 이 두 곳에서 한참 막혔어요. 2권은 제가 넘은 방법을 단계마다 복사해서 붙여넣는 "시킬 말"로 풀었어요. 완성 패키지를 받으면 클로드가 묻는 매장 정보에 대답만 하고 바로 시작해요.

2권에서 이어집니다.

2권 · 8단계와 몇 군데만 빼고 무료로 먼저 읽기

**[seoi.vercel.app/books/vol2](https://seoi.vercel.app/books/vol2)**

완성 패키지에 뭐가 들어 있는지, 가격까지 이 페이지에 있어요.